

# 수입합리화 대책

50여명의 수입업계 대표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수입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금번 지경부장관의 수입업계 간담회는 '04.3월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장관 주재 수입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 이후 5년만에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경환 장관은 우리 경제발전에 있어서 수입이 수출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을 강조하였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원자재와 자본재의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바, 수입업체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 싸고 질 좋은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 수입업체와 5년만에 간담회

우리나라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비중은 90% 수준을 차지한다. 원자재 비중은 ('80) 65.0 ('90) 54.7 ('00) 50.8 ('08) 62.4 ('09.1~11.20) 57.1이고, 자본재 비중은 ('80) 23.0 ('90) 36.7 ('00) 40.2 ('08) 28.3 ('09.1~11.20) 32.6이다.

금년에 우리 수출이 사상 최초로 세계 9위로 부상하고 무역흑자도 400억불로 예상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데에는 수입업체의 숨은 공헌이 있었다고 치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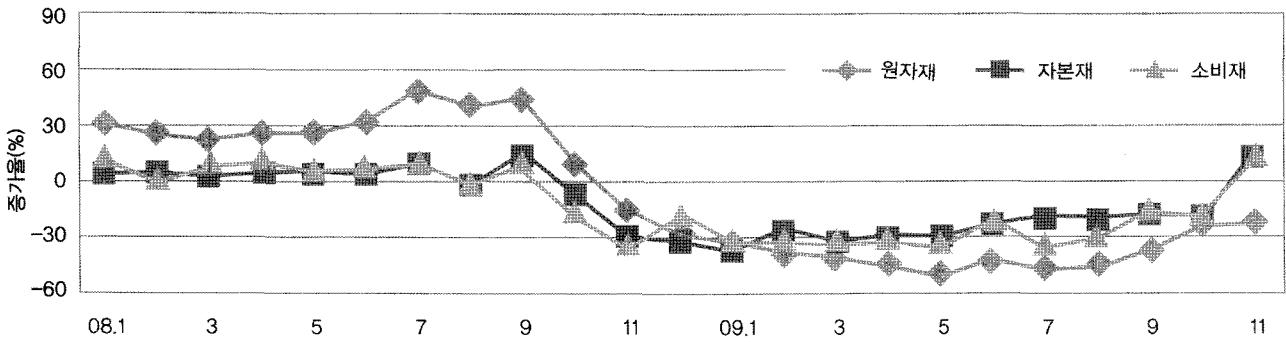
한편 경제위기로 인하여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무역불균형 시정이 논의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선제적으로 대

【 연도별 10대 수입상품 】

(단위 : 백만달러, %)

|       |       | 1961       | 1970   | 1980         | 2000  | 2008          |          |                |           |                |
|-------|-------|------------|--------|--------------|-------|---------------|----------|----------------|-----------|----------------|
| 1     | 양모    | 42.1(23.0) | 일반기계   | 306(15.4)    | 원유    | 5,633(25.7)   | 원유       | 25,216(15.7)   | 원유        | 85,855(19.7)   |
| 2     | 어패류   | 30.2(16.5) | 곡물     | 245(12.3)    | 곡실류   | 967(4.4)      | 반도체      | 19,923(12.4)   | 반도체       | 32,018(7.4)    |
| 3     | 원면    | 29.4(16.1) | 운반용기기  | 151(7.6)     | 목재류   | 899(4.1)      | 컴퓨터      | 7,890(4.9)     | 천연가스      | 19,806(4.6)    |
| 4     | 광물성연료 | 27.4(15.0) | 전기기기   | 133(6.7)     | 기호식품  | 656(3.0)      | 석유제품     | 4,911(3.1)     | 석유제품      | 17,534(4.0)    |
| 5     | 곡물    | 24.0(13.1) | 석유     | 133(6.7)     | 기타농산물 | 620(2.8)      | 천연가스     | 3,882(2.4)     | 철강판       | 17,203(4.0)    |
| 6     | 대두    | 8.3(4.5)   | 섬유사    | 128(6.5)     | 기타집제품 | 594(2.7)      | 반도체제조용장비 | 3,748(2.3)     | 석탄        | 12,810(2.9)    |
| 7     | 목재    | 7.2(3.9)   | 목재     | 125(6.3)     | 선박    | 545(2.5)      | 금,은 및 백금 | 2,698(1.7)     | 컴퓨터       | 9,723(2.2)     |
| 8     | 생고무   | 5.8(3.2)   | 직물     | 120(6.0)     | 철강판   | 540(2.5)      | 유선통신기기   | 2,544(1.6)     | 합금철선 및 고철 | 7,960(1.8)     |
| 9     | 설탕류   | 5.6(3.1)   | 철 및 강철 | 90(4.5)      | 석유제품  | 510(2.3)      | 철강판      | 2,463(1.5)     | 정밀화학원료    | 6,879(1.6)     |
| 10    | 펄프    | 5.0(2.7)   | 금속광    | 50(2.5)      | 석탄    | 448(2.0)      | 정밀화학원료   | 2,317(1.4)     | 동제품       | 6,288(1.4)     |
| 10대상품 |       | 185( 65.4) | 10대상품  | 1,481( 74.6) | 10대상품 | 11,412( 52.0) | 10대상품    | 75,592(47.1)   | 10대상품     | 216,076(49.6)  |
| 전품목   |       | 283(100.0) | 전품목    | 1,984(100.0) | 전품목   | 21,950(100.0) | 전품목      | 160,481(100.0) | 전품목       | 435,275(100.0) |

【 용도별 수입증가율(전년동월비) 】



|     | 08.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09.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원자재 | 44.6 | 40.9 | 36.6 | 40.3 | 41.1 | 45.6 | 65.9 | 57.1 | 60.4 | 20.3  | -7.5  | -21.0 | -29.9 | -34.7 | -39.6 | -40.4 | -47.6 | -41.0 | -44.8 | -40.2 | -32.4 | -18.1 | -15.9 |
| 자본재 | 13.6 | 14.3 | 12.3 | 14.6 | 13.5 | 13.9 | 20.5 | 7.9  | 26.2 | 0.1   | -23.8 | -26.0 | -33.4 | -22.9 | -30.3 | -26.9 | -24.8 | -18.8 | -14.6 | -15.0 | -11.5 | -13.3 | 25.9  |
| 소비재 | 24.0 | 10.7 | 20.9 | 23.1 | 14.1 | 19.0 | 20.3 | 8.8  | 18.9 | -10.0 | -28.8 | -11.1 | -33.2 | -27.8 | -27.1 | -29.4 | -29.6 | -13.4 | -29.3 | -23.3 | -9.7  | -11.0 | 22.7  |

올해 하반기에 수출 뿐만 아니라 수입의 확대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입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세계경기 회복과 맞물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주요 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수입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0년 유가전망(\$/bbl)은 (정부)80내외 (한은)83 (KDI)80내외 (KIET)77 (삼성연)84 (현대연)85이다.

특히 지난해 철강가격 급등시 고철 등에 대한 사재

기 수입을 했던 일부 수입업체가 국제가격 폭락으로 큰 피해를 입은 뼈아픈 경험을 교훈삼아 불요불급 제품의 비정상적 수요 폭발 우려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수입에 대한 금융·보험지원, ② 주요 원·부자재의 안정적 확보역량 강화, ③ 무역불균형 개선노력 확대, ④수입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입보험제도로 대외리스크 담보

수입에 대한 금융·보험지원 방안을 보면, 수입보

【 주요 원자재별 가격추이 (해당기간 평균가격) 】

| 주요 원자재       |        | '08.7 | '09.2(A) | '09.4 | '09.6 | '09.10 | '09.12.7(B) | 증감률(B/A) |
|--------------|--------|-------|----------|-------|-------|--------|-------------|----------|
| • 철강(천원/톤)   | 철근     | 1,021 | 821      | 821   | 751   | 771    | 721         | Δ12.2%   |
|              | 철스크랩   | 652   | 358      | 350   | 318   | 363    | 360         | 0.6%     |
| • 비철금속(\$/톤) | 구리     | 8,413 | 3,314    | 4,406 | 5,013 | 6,287  | 6,921       | 108.8%   |
|              | 알루미늄   | 3,071 | 1,330    | 1,421 | 1,573 | 1,878  | 2,103       | 58.1%    |
| • 석유화학(\$/톤) | 납사     | 1,570 | 610      | 695   | 855   | 916    | 1,200       | 96.7%    |
|              | 플리프로필렌 | 2,028 | 856      | 1,073 | 1,089 | 1,082  | 1,136       | 32.7%    |

험제도를 도입, 수입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외리스크를 담보하여 중요원자재와 물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를 도모한다. 수입보험제도란 선금을 지급한 수입상이 물건을 수취하지 못하고, 선급금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담보(일본, 핀란드, 벨기에 등 운영)이다. 지원대상은 석유, 가스, 6대 전략광물 및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원자재가격변동보험의 제도를 개선하여 수출중소기업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한 가격 변동 헷지 수단을 제공한다. 원자재가격변동보험이란 원자재(구리, 알루미늄, 니켈) 가격 상승으로 수출중소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가격 하락시 수출기업의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08.7월~'09.11월까지 61억원 지원)이다.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정책자금' 및 국책 금융기관의 '원자재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원자재 구매부담을 완화한다. '09년부터는 '원자재구매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도·소매업 및 유통업까지 확대하여 수입업자에게도 지원한다. 중기청 원자재정책자금은 '09년 지원한도 15,000억원(추경 8,000억원 포함) 지원하고, 수출입은행 원자재수입자금 용자는 ('

09.11말) 2조 1,722억원 지원한다.

### 원부자재 안정적 확보 강화

둘째, 주요 원·부자재의 안정적 확보역량 강화이다. 현재 주요원자재

30개 품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수입가격지수 조사 및 공표를 국내 산업에 기여도가 높은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70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수입업체가 효율적이고 낮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조사중인 30대 수입원자재는 농산품(5개 품목), 광산품(4개 품목), 유무기원료(5개 품목), 유화원료(4개 품목), 섬유원료(4개 품목), 철강재(4개 품목), 비철금속(4개 품목)이고, '95.12월 가격을 100으로 기준, 30대 수입원자재 가격을 '96년 1월부터 조사·발표했다.

국제 원자재가격 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급등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긴급할당관세 시행 등으로 국내 원자재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지난해 원자재가격 급등시 2차례 긴급할당관세 시행 ('08.4, '08.8)하였다.

소량구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원자재

【 연도별 10대 수입국가 】

(단위 : 백만달러, %)

|    | 1970       |              | 1980       |               | 1990       |               | 2000       |                | 2008       |                |
|----|------------|--------------|------------|---------------|------------|---------------|------------|----------------|------------|----------------|
| 1  | 일본         | 809(40.8)    | 일본         | 5,858(26.3)   | 일본         | 18,574(26.6)  | 미국         | 31,828(19.8)   | 중국         | 76,930(17.7)   |
| 2  | 미국         | 585(29.5)    | 미국         | 4,890(21.9)   | 미국         | 16,942(24.3)  | 일본         | 29,242(18.2)   | 일본         | 60,956(14.0)   |
| 3  | 독일         | 67(3.4)      | 사우디        | 3,288(14.7)   | 독일         | 3,295(4.7)    | 캐나다        | 12,799(8.0)    | 미국         | 38,365(8.8)    |
| 4  | 말련         | 58(2.9)      | 쿠웨이트       | 1,753(7.9)    | 호주         | 3,284(4.7)    | 사우디        | 9,641(6.0)     | 사우디        | 33,781(7.8)    |
| 5  | 프랑스        | 52(2.6)      | 호주         | 680(3.1)      | 중국         | 2,268(3.2)    | 호주         | 5,959(3.7)     | UAE        | 19,248(4.4)    |
| 6  | 필리핀        | 42(2.1)      | 이란         | 643(2.9)      | 사우디        | 1,725(2.5)    | 인니         | 5,287(3.3)     | 호주         | 18,000(4.1)    |
| 7  | 이란         | 39(2.0)      | 독일         | 637(2.9)      | 인니         | 1,600(2.3)    | 독일         | 4,878(3.0)     | 독일         | 14,769(3.4)    |
| 8  | 사우디        | 38(1.9)      | 인니         | 485(2.2)      | 말련         | 1,586(2.3)    | 말련         | 4,703(2.9)     | 카타르        | 14,375(3.3)    |
| 9  | 중국         | 34(1.7)      | 말련         | 472(2.1)      | 캐나다        | 1,465(2.1)    | 대만         | 4,701(2.9)     | 쿠웨이트       | 12,129(2.8)    |
| 10 | 영국         | 33(1.7)      | 캐나다        | 378(1.7)      | 대만         | 1,452(2.1)    | UAE        | 4,625(2.9)     | 인니         | 11,320(2.6)    |
|    | 10대국 계 총수입 | 1,740(87.7)  | 10대국 계 총수입 | 19,084( 85.6) | 10대국 계 총수입 | 51,496( 73.7) | 10대국 계 총수입 | 113,663( 70.8) | 10대국 계 총수입 | 300,233( 69.0) |
|    |            | 1,984(100.0) |            | 22,292(100.0) |            | 69,844(100.0) |            | 160,481(100.0) |            | 435,275(100.0) |

확보와 외화절약을 위해 비경쟁 원·부자재의 대량 공동구매 지원 추진을 검토한다. 현재 선철, 희토류 등 비경쟁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하기 위한 법인(코이마홀딩스)을 설립('09.12..2)한다.

**신흥시장에 구매사절단**

셋째, 무역불균형 개선 노력을 확대한다.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확보할수 있는 신흥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구매사절단 파견을 확대('09 : 10회 → '10 : 15회)한다. 정부는 일부(구매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광고비, 컨설팅비 등)를 보조한다.

수입상품 전시회를 확대하여 교역상대국의 한국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이미지를 홍보한다. '09년에는 1.5억원을 지원하여 5.25~5.30일간 30개국 160업체가 참여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주요 수입물품 등에 관한 홍보물을 외국 정부기관 뿐 아니라 외국의 생산자단체 및 무역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양자간 통상협상을 통해, 우리의 수입확대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적인 보호주의 방지노력에 동참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의장국인 2010년도 G20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저지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세계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지속 확대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WTO 도하개발아젠더(DDA)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수입에도 원산지 표시 보완**

넷째, 수입 관련 제도 개선이다. 수출입 뿐 아니라 수입제품의 국내유통과정에서도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09.4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원산지 위반에 대

한 과징금 부과를 강화(3천만원→3억원)하였고, 벌칙강화(벌금 3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징역 3년 이하 → 5년 이하)를 위해 법 개정 추진중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중이다. 지적권 침해물품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에 포함시켜 이를 세관에 사전 통보하고 세관은 동 물품에 대해 반송조치 등 국경조치한다.

**무역전문인력 양성 공급**

일반대학의 실무중심 무역전문대학원 선정·지원을 통한 무역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다. 인터넷기반의 전자무역환경인 글로벌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에 대해서도 일관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물류비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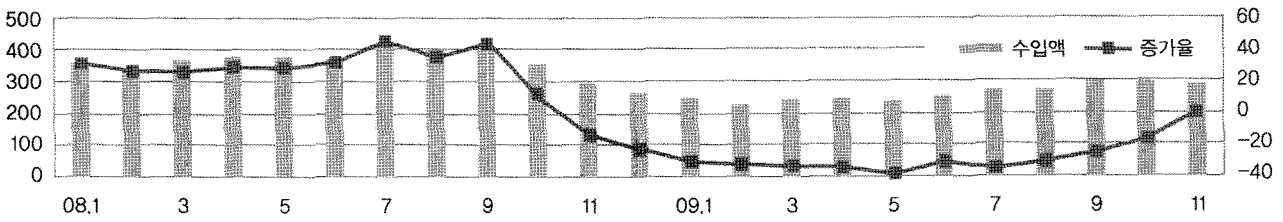
수입업자는 서류의 감소 뿐 아니라 관세감면 처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화물진행상태의 조회·확인, 화물도착정보 알림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07년 기준)은 美 6.5, 日 4.8 韓 9.1이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중소 무역업체 대표들은 수입보험제도 도입, 수입화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수입화물 보관료의 적정 가이드라인 준수 확대, 해외유수기관의 인증이 있는 경우 국내 인증기관의 중복인증 면제, 종합적 수입지원기관의 설립, 수입관련 정보제공 강화, 수입업체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원산지표시제도의 합리화 등을 건의하였다.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큰폭 감소**

최근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09.1~11월간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9.1% 감소한 2,898억불 시현했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급감, 내수부진, 유

【 최근 수입동향('08.1 ~ '09.11월) 】



가하락 등으로 '08. 11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수입 규모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 수출액(억불)은 ('08.1~11월) 3,949 → ('09.1~11월) 3,275 (전년동기대비  $\Delta$ 17.1% ↓)이다. 내수증감율(전년동기대비, %) : ('08.4Q)  $\Delta$ 5.0 → ('09.1Q)  $\Delta$ 8.5 → (2Q)  $\Delta$ 7.5 → (3Q)  $\Delta$ 4.4이다. 1~10월 中 유가(\$/B)는 ('08) 103.4 → ('09) 58.7이고, 원유수입(억불)은 ('08) 768.7 → ('09) 406.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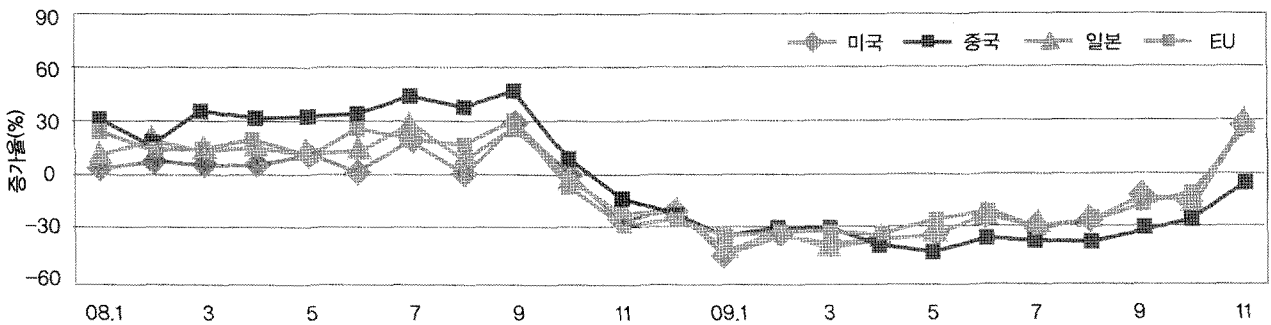
최근 세계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수입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다. 일평균수입액(억불)은 ('09.1) 11.6 → (3) 10.0 → (5) 10.6 → (7) 11.1 → (9) 12.4 → (11) 13.1이다.

수입물량 전년 수준 이상 회복세

수입물량의 경우, 2009년 6월에 전년수준으로 회복하였고, 9월부터는 오히려 작년보다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물량지수('05=100)는 ('08.1)132.3 (6)117.2 (8)122.3 (9)125.5 (10)119.0 ('09.1)114.3 (6)116.1 (8)118.4 (9)126.8 (10)129.7 이다.

수출호조, 소비심리 회복으로 자본재·소비재는 증가세로 전환, 최근 유가상승으로 원자재 감소폭도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자본재 수입비중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있는 점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자본재 수입비중(%)은 ('80) 23.0 ('90) 36.7 ('00) 40.2

【 국가별 수입증가율(전년동월비) 】



|    | 08.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09.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미국 | 4.6  | 8.0  | 8.2  | 5.4  | 11.7 | 2.8  | 19.9 | 0.8  | 28.6 | -1.1 | -23.8 | -21.0 | -44.4 | -32.4 | -39.9 | -36.9 | -32.9 | -25.9 | -30.9 | -26.2 | -11.6 | -17.6 | 29.7 |
| 중국 | 29.7 | 16.2 | 35.8 | 31.1 | 31.2 | 33.9 | 44.1 | 37.3 | 47.2 | 8.4  | -14.2 | -22.6 | -35.0 | -30.8 | -29.8 | -39.2 | -42.1 | -35.6 | -39.0 | -37.5 | -31.0 | -25.4 | -5.8 |
| 일본 | 9.9  | 20.8 | 11.9 | 17.0 | 12.7 | 14.9 | 30.2 | 13.3 | 27.3 | -1.4 | -22.7 | -23.6 | -35.5 | -28.0 | -30.6 | -28.2 | -36.0 | -22.8 | -25.1 | -22.4 | -15.3 | -6.8  | 7.8  |
| EU | 24.4 | 12.7 | 12.9 | 19.5 | 10.2 | 27.0 | 18.9 | 15.4 | 30.1 | -6.5 | -27.5 | -20.9 | -33.6 | -29.4 | -34.5 | -31.5 | -25.3 | -21.4 | -29.3 | -23.0 | -15.0 | -9.7  | 28.6 |

(’08) 28.3 (’09.1~11.20) 32.6이다.

지난해 금융위기 영향이 컸던 미국, EU 등 선진국 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세로 전환했고 중국 등 개도 국은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2009년 1~11월간 수출 은 전년대비 17.1% 감소한 3,275.2억달러, 수입은 29.1% 감소한 2,898.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76.8 억달러 흑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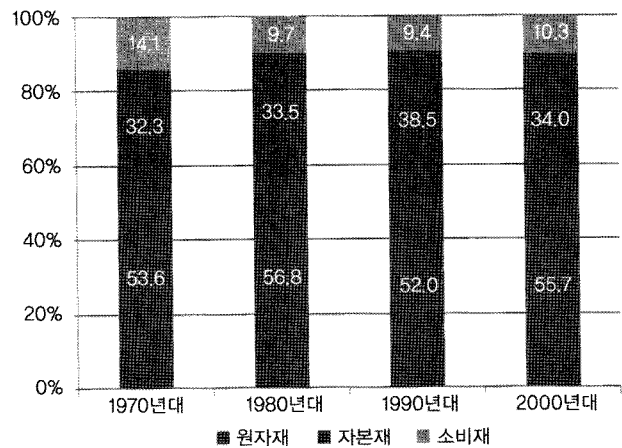
수입추세를 살펴보면, 우리의 경제규모가 증가함 에 따라 수입액도 ’60년 3.4억달러에서 ’08년 4,353 억달러로 1,265배 증가했다. 수입액(억달러)은 (’ 60)3.4 → (’70)19.8 → (’80)223 → (’90)698 → (’00)1,605→(’08)4,353이다.

성질별 수입에서 빈약한 자원과 생산기반으로 원 자재와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90%대를 유지한다.

10대 수입상품으로 ’60년대는 양모, 어패류, 원면, 목재 등 1차산품이, ’70년대는 일반기계, 곡물, 석유, ’80년대 이후에는 원유, 반도체, 기계류, 천연가스 등이 주로 수입되었다.

10대 수입지역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안 정적인 가운데, 남미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일본의 비중은 ’70년 40.8%에서 ’08년 14.0%로 감소하였

【 성질별 수입 현황 】



으며, 미국의 경우 ’70년 29.5%에서 ’08년 8.8%로 감소하였다.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09년 3.2%에서 ’08년 17.7%로 증가하여 ’06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1위의 수입국이 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 분의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08년 에는 홍콩에서 175억달러, 중국 145억달러의 무역흑 자를 기록했다.

【 연도별 10대 수입국가 】

(단위 : 백만달러, %)

| 1970 |        | 1980      |           | 1990      |            | 2000 |  | 2008 |  |
|------|--------|-----------|-----------|-----------|------------|------|--|------|--|
| 1    | 베트남 11 | 홍콩 725    | 홍콩 3,166  | 중국 9,447  | 홍콩 17,549  |      |  |      |  |
| 2    | 홍콩 8   | 영국 269    | 미국 2,418  | 홍콩 8,369  | 중국 14,459  |      |  |      |  |
| 3    | 스웨덴 5  | 네덜란드 263  | 싱가폴 908   | 미국 5,656  | 멕시코 8,041  |      |  |      |  |
| 4    | 태국 3   | 중국 239    | 영국 524    | 멕시코 3,326 | 미국 8,012   |      |  |      |  |
| 5    | 중국 2   | UAE 188   | 태국 505    | 대만 2,804  | 싱가폴 7,931  |      |  |      |  |
| 6    | 파나마 1  | 리비아 174   | 네덜란드 486  | 베트남 2,013 | 베트남 5,768  |      |  |      |  |
| 7    | 케냐 1   | 라이베리아 149 | 파나마 449   | 터기 1,925  | 파나마 5,591  |      |  |      |  |
| 8    | 사모아 1  | 나이지리아 124 | 스웨덴 428   | 인도 1,545  | 마셜군도 4,759 |      |  |      |  |
| 9    | 시리아 1  | 인도 119    | 라이베리아 315 | 스페인 1,487 | 폴란드 3,810  |      |  |      |  |
| 10   | 미얀마 1  | 이탈리아 111  | 멕시코 295   | 영국 1,425  | 터키 3,411   |      |  |      |  |